

항생제 기기(LC/MS/MS) 발주 착수

편집부

지난 2006년, 추석명절을 전후한 벌꿀 항생제 파동으로 당시 양봉업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 이후 언론과 소비자시민의모임에서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계속 주장하여 왔고,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벌꿀에 대한 항생제 규격을 9가지나 새로 추가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협회에서는 새롭게 신설된 항생제 검사와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새로운 항생제 기기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2007년 1월 4일, 박흥수 前 농림부장관이 축산회관의 각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우리 협회 양봉산물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박 前장관은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의 자체적인 노력을 격려하면서 항생제 기기 구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후 농림부에 각종 양봉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서 지원 약속이 계속 지연되어 협회는 농림부 장관 면담도 가지면서 끊임없이 요청하였지만,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지난 2007년 11월 13일 09:30부터 본 협 6층 회의실에서 2개 항생제기기판매업체로부터 기계성능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이후 항생제기기구입건에 대한 임원들의 토의가 진행되었다. 임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양봉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상의 선택을 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다양한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LC/MS/MS 기기를 5억2천만원(부가세별도)에 구입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이후로도 여러번의 이사회회가 소집된 끝에 마침내 지난 2007년 12월 3일 이사회에서 항생제 기기구입에 관한 최종협의를 이끌어 냈다.

협회에서는 항생제 9가지 규격이 신설되어 금년1월1일부터 검사를 시행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항생제기기구입은 매우 시급한 문제였던 만큼 바로 협회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항생제기기구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기기계약체결 내용을 보면, 총 기계대금 5억2천만원(부가세별도) 가운데, 계약시 계약금 1억7천만원(부가세별도)을, 장비 선적 통보시 9천만원(부가세별도)을, 납품완료시 1억3천만원(부가세별도)을, 설치완료 후 1억3천만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여 총 5억7천2백만원(부가세 10% 포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협회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7천만원 중 1차 계약금 6천8백만원을 12월7일에 지급하였으며, 2차 계약금 1억2백만원은 12월 20일에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항생제기기는 1월 중순 이후에 도착할 예정이며, 협회는 중도금 및 잔금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대금지급에 고심 중에 있다.

또한 양봉농가여러분께서는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양관리로 양봉산물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